

## 원효의 비불교적 배경 시론(試論)\*

김원명(한국외국어대)

### [한글 요약]

이 논문의 목표는 원효철학이 불교적 사유 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비불교적인 측면의 ‘고유함’, 그 고유함의 ‘시원’을 추측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원효의 실존적 근본경험이 그가 살던 시대의 살아있는 말 가운데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한국의 ‘문화목록어’라 할 수 있는 ‘한’, 그가 살던 시대의 살아있는 전통 종교인 풍류(風流), 단군신화와 대감굿 그리고 화백(和尓)의 지혜전통,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오랜 동안 다양한 경로로 들어와 축적된 접이지대의 문화교류와 관련이 깊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개체발생적 지혜가 고대 한국 중 하나인 신라인의 계통발생적 지혜와 다르지 않은 것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의 불교철학 이해의 바탕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효 철학의 비불교적 측면의 기원을 추측하였다.

에티엔느 세헤(Antoine Étienne Renaud Augustin Serres, 1786-1868)의, ‘개체발생(Ontogeny)은 계통발생(Phylogeny)을 반복한다’는 주장 이후,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은 ‘개별적 유기체의 배아발달은 그 종의 진화의 역사와 동일한 길을 따른다’고 주장했다. C.G. 융(Jung, Carl Gustav, 1875-1961)은 이를 의식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원효의 ‘근본경험’은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역사적이고 영적인 유산들이 축적된 집단무의식’과 관련이 있다. 원효 자신의 경험이 바로 한국인의 경험이며, 동시에 인류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주제분야 : 한국철학, 한국불교철학**

**주 제 어 : 고유성, 시원성, ‘한’, 화백**

---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I. 들어가는 말

원효(元曉, 617-686)는 국가적으로 신라인이며 종교적으로 불교 스님이며 학문적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 그는 당대에 그가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전적(典籍)을 섭렵하고 자신 안에서 무루 익혀 토해내며 방대한 저술활동을 했고, 진리에 목말라 그가 할 수 있는 수행은 다 했고, 그 자신 내면의 소리에 따라 방방곡곡을 누비며 당대의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효 자신이 스님이지만, 그는 신라인이기 때문에 신라에 사는 이들과 더불어 신라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과 문화 속에서 자라며 공부하고 수행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그 자신 ‘현존재의 근본경험’은 누구보다 그 자신만의 것이며, 그런 면에서 고유하다 할 수 있다.

생물학자인 에티엔느 세헤(Antoine Étienne Renaud Augustin Serres, 1786-1868)는 ‘개체발생(Ontogeny)은 계통발생(Phylogeny)을 반복한다’고 한 바 있다. 또 1866년 동물학자인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은 ‘개별적 유기체의 배아 발달은 그 종의 진화의 역사와 동일한 길을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심리학자 융(Jung, Carl Gustav, 1875-1961)에 따르면,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역사적이고 영적인 유산들이 축적된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ness)은 개인의 두뇌구조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원효의 근본경험은 그 자신의 경험이며, 한국인의 경험이며, 동시에 인류의 경험이다. 1300여년을 지나오며 수많은 이들이 그의 책을 읽고 또 그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며,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해 왔다.

원효가 토해낸 글들은 그때 거기에서 “현존재의 근본경험에서 발원해 나오며 거기에서 자라 나온”<sup>2)</sup> 것들이다. 그는 그의 글을 통해 “자기 이해의 근본 내용을 끄집어 드러내어 보이”<sup>3)</sup>고 있다. 그런데, 그 자신 ‘현존재의 근본경험’을 통해 글로 드러내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글들은 결국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고유한 시간과 고유한 말과 고유한 문화전통을 전제로 하면서 불교와 유가와 도가의 언어와 문화전통을 열린 자세로 포용하고 공유하게 되면서 성숙되어 불교적으로 승화된 것들이다. 때문에 그의 저술은 불교적 동일성에 맞닿아 있으면서, 동시에

1) 김상일(1988 초판/2004 2판), 『켄 월버의 초인격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민족 의식 전개의 역사』, 지식산업사, 15쪽 참조.

2) 이기상(1993), 『하이데거의 현상실성의 해석학』, 이기상 편저, 『하이데거 철학에의 안내』, 서광사, 96쪽.

3) 같은 논문, 같은 곳.

비불교적 ‘시원(始原)’을 담고 있다. 원효 사상이 불교적 사유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의 ‘고유함’에는 비불교적인 ‘시원적’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원효가 불교의 지혜를 받아들여 이해하고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은 그만의 ‘근본 경험’이며 동시에 인류의 공통적 근본경험이다. 그는 고대 한국말, 고대 한국종교, 고대 한국문화전통 바탕에서 불교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특수하고 개별적인 경험을 한 것이다. 그 특수성, 개별성은 우리말 ‘하나’, 한국 고대종교 풍류도, 한국 고대 정치·사회제도인 화백과 대감굿, 이전부터 당시까지 신라의 세계적 문화교류 증거들이 될 것이다. 이들을 제시하고 원효 철학의 특성과 연결해 이해함으로써, 비불교적 측면에서 원효 철학의 고유성과 시원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이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시론(試論)이다.<sup>4)</sup>

## II. 원효철학의 비불교적 특성 밝히기 연구 성과들

원효의 모든 저술들은 불교에 관계된 것들이다. 또 그의 세계 이해 틀이 불교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의 저술이 불교에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부처님 이래로 전개된 인도의 불교와 다른 도가나 유가의 저술들을 읽고 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원효철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현대 연구 성과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남선이 1930년 원효를 ‘전일적 불교’를 표현하려 한 ‘통불교’의 건설자로 조명<sup>5)</sup>한 이래로 원효에 대한 많은 현대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조명기(1962)는 원효의 각 저술들이 일관하는 주지는 “전불교를 화회귀일(和會歸一)하려는” 것이 “명료하다”고 하며 원효의 근본사상이 ‘총화성’에 있음을 주장한다.<sup>6)</sup> 이종익(1975)은 원효 저술에서 ‘화쟁’ 사상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파악한다.<sup>7)</sup> 이평래(1987)는 원효 철학이 『대승기신론』의 여래장설에 토대를 두고 일관하고 있다고 본다.<sup>8)</sup> 최유진(1988)은 화쟁을 원효 철학의 근본적인 특징으로 보고, 화쟁의 필

4) 칸트는 도덕적 본성을 완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위한 ‘유익한 교훈과 개선점’을 얻기 위해 『인류사의 추측적 기원』(1786)에 대한 그의 상상을 썼다.

5) 최남선(1930/1973 재수록), 『조선불교 :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 『육당 최남선 전집』 2, 현암사, 551-4쪽 참조.

6) 조명기(1962/2002 재수록), 『불교의 총화성과 원효의 근본사상』, 예문동양사상연구원·고영섭 편저, 『원효』, 예문서원, 54쪽.

7) 이종익(1975/2002 재수록), 『원효의 『십문화쟁론』 연구』, 같은 책, 235-7쪽.

요성, 화쟁의 근거, 화쟁의 방법을 논구하였다.<sup>9)</sup> 고영섭(1984)은 원효의 저작들이 한결같이 지향하는 것은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효는 못 이쟁들 즉 부정과 긍정, 초월과 내재, 있음과 없음, 세움과 깨뜨림, 불화와 조화 등 모든 상대적 이쟁들을 회통하여 일심의 세계로 안내한다는 것이다.<sup>10)</sup> 정영근(1999)은 종래 원효 사상을 화쟁, 일심, 화엄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포괄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불교 사상과 구분이 잘 되지 않거나 중국 화엄 사상과 구분이 가지 않으므로 ‘이문일심 사상’으로 규정한다면, 기존의 원효 사상의 특징들을 포괄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유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한다.<sup>11)</sup>

당대의 또 다른 주류학문인 유가와 도가의 영향을 밝히고 있는 이들도 있다. 박성배(1979)<sup>12)</sup>나 井公成(1983)<sup>13)</sup>, 남동신(1988, 2004)<sup>14)</sup>, 요르그 플라센(2004)<sup>15)</sup>, 최유진(2004, 2005)<sup>16)</sup> 그리고 김도공(2005)<sup>17)</sup>이다.

최유진은 불도를 도로 표현하고 그 설명에서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玄之又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도라고 한다(不知何以言之強爲道)”와 같은 표현 그리고 “함이 없으면서 안함이 없다(無爲無不爲)”는 표현들이 노장사상을 공부했을 증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관을 살펴보면, 원효는 부정의 부정에서 다시 대긍정으로 넘어가며, 언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궁극적인 것만 아니라, 망고처럼 일상적인 구체적 사물도 임시적인 이름이지 실제성을 넘어서 있다고 한다는 점에서 노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sup>18)</sup> 장자가 명(名)과 의(義)를

8) 이평래(1987/2002 재수록), 『여래장설과 원효』, 같은 책, 140-7쪽.

9) 최유진(1988/1998 재수록), 『원효사상연구-화쟁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출판부 참조.

10) 고영섭(1984/2002 재수록), 『원효의 통일학』, 예문동양사상연구원·고영섭 편저, 같은 책, 207-8쪽.

11) 정영근(1999/2002 재수록), 『원효의 사상과 실천의 통일적 이해』, 같은 책, 참조.

12) 박성배(1979/2002 재수록), 『원효 사상 전개의 문제점』, 같은 책, 319-22쪽 참조.

13) 石井公成(1983), 『元曉と中國思想』, 『인도학불교학연구』 31-2, 일본인도불교학회 참조 ; 최유진(2005), 『원효와 노장사상』, 『보조사상』 24집, 136-7쪽에서 참조.

14) 남동신(1988), 『원효의 교판론과 그 불교사적 위치』, 『한국사론』 2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6쪽 참조 ; 남동신(2004), 『원효의 기신론관과 일심사상』, 『한국사상사학』 제22집, 한국사상학회 참조.

15) 요르그 플라센(2004.10), 『중현(重玄)의 법문(法門)-중국불교의 맥락에서 화쟁사상 재평가하기』, 『금강대학교 국제불교학술회의』, 금강대학교 참조.

16) 최유진(2005.8), 『원효와 노장사상』, 『보조사상』 제24집, 보조사상연구원 참조 ; 최유진(2004), 『원효와 노자』, 『원효학연구』 제9집, 원효학연구원 참조.

17) 김도공(2005.8), 『원효의 화쟁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장자 제물론의 영향』, 『보조사상』 제24집, 보조사상연구원 참조.

18) 최유진(2004), 『원효와 노자』, 『원효학연구』 제9집, 원효학연구원 참조.

엄밀히 나누는데 반해 원효는 이름과 뜻이 서로 짝이 되어 상대적으로 서로를 이룬다고 하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최유진은 원효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교철학자로서의 입장을 취한다. 그의 연구는 ‘불교와 전통사상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주고, 원효가 ‘포용적인 자세’를 가졌으며 ‘불교 이외’의 ‘이교 사상’에 대해 ‘열린 자세’였다는 것이다.<sup>19)</sup>

김도공은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을 중심으로 화쟁사상의 유사점을 찾아 비교했다. 화쟁회통(和靜會通)과 만물제동(萬物齊同), 일심(一心)과 도추(道樞), 비연비불연(非然非不然)과 천균(天均), 비일비이(非一非二)와 이명(以明), 무이이불수일(無二而不守一)과 양행(兩行)을 비교하였다. 또 장애가 되는 이집(二執)은 성심(成心)과 비교하였다. 김도공은 원효의 화쟁 방법론이 7세기의 동아시아 불교사상계의 공유된 성숙한 내용이었을 것이며, 장자가 격의불교와 불교의 중국화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점을 생각하면, 원효사상의 형성도 중국불교 사상뿐만 아니라, 노장사상과 현학과의 상호교섭 속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쟁사상은 그의 독창적 사상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공유되는 성숙된 내용들이 불교의 본질과 동양사상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귀결된 것이라고 본다. 그의 이러한 연구는 원효사상 형성의 ‘다원적인 요인’을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다.<sup>20)</sup>

한국 학계에는 2000년대 들어 김도공이나 최유진의 최근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바와 같이 원효사상 형성의 ‘다원적인 요인’을 파악하려는 시도의 흐름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그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를 시도한다. 근본적으로 본 연구는 원효 스님의 사상이 큰 틀에서 불교적이거나 노장적 혹은 유가적으로 ‘상호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지는 논의와 다르고, 스님 원효가 ‘불교 이외’의 ‘이교 사상’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 혹은 ‘열린 자세’였다는 것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본 연구는 실존적 인간 원효가 당시에 고대 한국말을 썼다는 사실, 원효가 당시 고대 한국의 고유한 문화 전통을 경험하고 그 속에 살았으며, 그런 바탕에서 당시의 외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여 이해했다는 ‘실존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면, 비불교적이지만 그의 실존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19) 최유진(2005.8), 『원효와 노장사상』, 『보조사상』 제24집, 보조사상연구원 참조.

20) 김도공(2005.8), 『원효의 화쟁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장자 제물론의 영향』, 『보조사상』 제24집, 보조사상연구원 참조.

### Ⅲ. 원효의 비불교적 배경

#### 1. 언어 : ‘한’

한국사상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없이 순수한 사고 그 자체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 현대의 기독교사상이나, 전통 속에서 기독교보다 일찍이 고대에 받아들여 한국의 역사를 통해 생활화해 온 불교사상이나 유가사상도 마찬가지다. 현대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적 정서를 담아 한국적 기독교로 승화하였듯이, 불교사상이나 유가사상도 한국적 정서를 담아 한국적 불교, 한국적 유가 사상으로 승화한 것<sup>21)</sup>이라 보아야 한다. 원효의 불교 이해 특히 일심 이해는 ‘일’을 ‘하나’로 읽으면서 ‘하나’가 가진 다양한 의미 속에서 재해석되고 다시 읽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원효의 ‘일심’에 대해 남다른 설명을 하는 이유를 논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원효는 『기신론(起信論)』에 나오는 ‘일심’을 『능가경(楞伽經)』과 비교하며 이해를 하였다. 그런데, 그의 일심 설명은 불교경론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다. 논거를 통해 설명한 것이 아니다. 『기신론』에는 그저 ‘일심에 두 문이 있고, 그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괄하며,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는 단순한 설명이다. 『기신론』의 설명과 관련된 『능가경』의 설명이라야 고작 ‘적멸이 일심’이고 ‘일심이 여래장’이라는 것 뿐이다. 그런데 원효는 ‘염정(染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없어, 진망(眞妄)의 이문(二門)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一)’이라 이름한다.”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끊은 것이니 무엇이라고 지목할지를 모르겠으나, 억지로 이름하여 일심(一心)이라 하는 것이다”<sup>22)</sup>

여기서 마지막 문장은 노장의 어법을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설명은 일

21) 최봉영은 퇴계가 아무리 주자학을 공부하더라도 퇴계와 다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 가지 든다. 첫째, 나라와 시대 차이. 즉 주자가 중화에 바탕한 세계질서를 기본으로 그의 철학을 전개하나, 퇴계는 조선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대부를 목표로 그의 철학을 전개한다는 점. 둘째, 언어의 차이. 주자가 당시 중국말로 생각하고 글을 썼다면, 퇴계는 중국말을 읽고 한국말로 풀어 이해함으로써 중국말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국말로로는 새롭게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점. 셋째, 공부방법의 차이. 주자는 성리학이 천하의 학문이 되기 위한 기틀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그의 학문을 전개하나, 퇴계는 이미 세워진 체계를 묻고 따지며 언어체계가 다른 한국말로 풀어 공부하였다는 점. 최봉영(2009), 『퇴계학의 바탕으로서 한국말』,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글 못』 제17집,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2009년8월24일 참조 ; 최봉영(2009), 『퇴계학의 바탕으로서 우리말』, 『한글날 기념학술대회 : 우리말로 학문하기 위한 조건들』,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2009년10월9일 참조.

22) 원효 저, 은정희 역주(1991 초판),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일지사, 86-8쪽.

(一)과 이(二)에 대한 탁월한 통찰이 배어 있다. 이런 통찰과 설명이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가 ‘하나’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일(一)’을 원효는 ‘하나’나 ‘한’으로 읽었을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한’에는 스물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6,000여 년 이상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라 한다. ‘한’은 우리 민족의 문화목록어<sup>23)</sup>라 할 수 있다.

‘한’의 뜻 가운데 중요한 다섯 가지가 있다.<sup>24)</sup> ①하나[一] ②여럿[多] ③가운데[中] ④같은[同] ⑤어떤[或]·얼마[不定]. ‘하나’는 ‘여럿’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가 열려져 여러 ‘하나’를 만들면서 ‘하나 하나’가 된다. ‘하나’는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 그 자체로는 전체가 아니게 되어 자기비동일성을 갖는다. ‘하나’가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자신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인 ‘온’과 부분적 개별인 ‘날’의 개념을 갖는다. ‘하나’는 자기 서술과 자기 비동일성을 가진다.<sup>25)</sup> 그래서 ‘가운데’마저 버리고 ‘어떤’으로 넘어가고, 이미 전체가 완속해 파멸하여 개체 속에 전체, 전체 속에 개체가 자유자재로 나타난다.<sup>26)</sup> 그럴 수 없으면서 크게 그럴 수 있는 전체가 매 상황마다 그때그때 달라지면서도 크게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이런 말이 절대적 경지에 오묘히 계합한다.

전체로서의 하나는 그 안에 포함되는 하나로서의 하나와는 다른 하나며 같은 하나다. ‘전체’의 모든 부분집합의 집합에는 ‘전체’가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전체’는 전체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부분이 된다. 그래서 전체는 전체지만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신과 동일하지만 그 자신과 동일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은 다르지도 않지만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23) “어떤 민족의 문화는 그 민족의 고유한 언어나 어휘체계를 통하여 그 특징이 잘 나타나는 데,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언어 혹은 언어체계들을 『문화목록』이라고 한다. 그리스인들의 『아르케(Arche)』, 히브리인들의 『토라(Torah)』, 인도인들의 『브라만(Brahman)』, 중국인들의 『도(道:Tao)』 같은 어휘들이 곧 그 나라 민족 문화의 고유한 『문화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 육당은 『궤(不咸)』을 … 奎奎泰는 『뽕』『을』『금』을 … 김정택은 『감』을 구석기 시대, 『닥』을 신석기시대, 『뽕』을 청동기시대, 『한』을 철기시대의 목록어로 보고 있다.” 김상일(1988 초판/2004 2판), 『켄 월버의 초인격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민족 의식 전개역사, 지식산업사, 11-12쪽.

24) 6,000여 년 전에는 네 음절의 ‘ga-da-na-gan’이 있었는데, 한 음절씩 차례로 빠져버리고 남은 것이 ‘gan’이었고, 여기서 몽고어 ‘khan’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han’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의 24가지 뜻은 다음과 같다. 크다, 동쪽, 밝다, 하나, 통일, 못 무리, 오래, 전체, 처음, 한민족, 희다, 바르다, 높다, 같다, 많다, 하늘, 길다, 으뜸, 위, 임금, 온전함, 포함(包含), 비결정, 가운데. 김상일(2004), 『원효의 판비량론 비교 연구』, 지식산업사, 30-1쪽 참조.

25) 김상일(2004), 같은 책, 56-67쪽 참조.

26) 김상일(1986 초판/1992 4판), 『한 思想』, 온누리, 24쪽.

이것은 『금강삼매경론』에서 보이는 “진실로 그렇지 않으면서 크게 그러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이 환중(環中)<sup>27)</sup>에 오묘히 계합하며,…”<sup>28)</sup>라는 일심이라는 원천을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무이이불수일(無二而不守一)의 화쟁 논리나 비일비이(非一非二)의 화쟁 논리와 같은 것이다. 부분과 전체가 되먹임되는 ‘한’은 원효가 『기신론(起信論)』의 종체(宗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펼쳐보면 무량무변(無量無邊)한 뜻으로 종지(宗旨)를 삼고, 합해 본다면 이문일심(二門一心)의 법으로 요체를 삼고 있다. 이문(二門)의 안에 만 가지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어지럽지 아니하며, 한량없는 뜻이 일심(一心)과 같아서 혼융(混融)되어 있으니, …”<sup>29)</sup>

우리말 ‘한’의 ‘집단무의식’은 한국인의 계통발생적 존재이해 방식으로서 원효의 개체발생적 존재이해 방식에 맞닿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효의 『금강삼매경』 이해로서의 『금강삼매경론』은 ‘한’의 집단무의식이 개체발생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2. 종교 : 풍류(風流)

‘한’의 사전적 의미 속에 일(一)·다(多)·중(中)·동(同)·혹(或) 등의 철학적 의미가 포함되어 풍류도(風流道)라는 선택에도 이와 같은 성격이 드러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풍류(風流)는 바람과 구름처럼 늘 걸림 없이 흐르는 모습을 이른다. 풍류는 어떤 고정된 형상을 지속하지 않고 초월하지만 그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바람이 불 때, 그것이 어떤 고정된 형상이 없지만 바람인지 알 수 있듯이. 김상일은 최치원이 말한 풍류가 바로 ‘신바람’이라고 한다. 화랑들도 바로 이 ‘신바람’에 사로잡혀 자기를 넘어, 자기 목숨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30)</sup> 원효가 ‘한’의 비결정적 부정(不定) 그리고 혹(或)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와 내적 연관을 가진 풍류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자성을 두지 않는 불교를 걸림 없는 무애(無碍)적 성격으로 잘 이해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sup>31)</sup> 원효가 『기신론(起信論)』의 종체(宗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 개합(開合 : 펼침과 합함)이 자재하며 입파(立破 : 세움과 깨뜨림)

27) 옳고 그름을 초월한 절대의 경지. 은정희·송진현 역주(2000),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1쪽 주 3) 참조

28) 은정희·송진현 역주(2000), 같은 책, 20쪽.

29) 은정희 역주(1991 초판/1992 4쇄),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26-7쪽.

30) 김상일(1986 초판/1992 4판), 위 책, 176쪽 참조

31) 김상일(2004), 같은 책, 295쪽 참조

가 걸림이 없어서, 펼쳐도 번잡하지 않고 합하여도 험착하지 않으며, 세위도 얻음이 없고 깨뜨려도 잃음이 없다”<sup>32)</sup>

최치원(崔致遠)이 「난랑비서(鸞郎碑序)」<sup>33)</sup>에서 밝히고 있듯이, 풍류도는 유불선 삼교를 이미 포함(包含)하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원효가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에서 ‘참기(讖記) 외서(外書)’ 등을 읽었으며, 『송고승전(宋高僧傳)』 「원효전(元曉傳)」에 ‘삼학(三學)에 두루 통하고 입신(入神)의 경지’에 있었다는 말에서 삼학(三學)이 계정혜(戒定慧)가 아니라 유불선(儒佛仙)이라면 그것이 참기 외서를 읽었다는 비문과 일치하는 것이다.<sup>34)</sup>

박성배는, 원효가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에서 ‘참기(讖記) 외서(外書)’ 등을 읽었다는 기록에 주목하고, 또 찬녕(贊寧, 919-1002)의 『송고승전(宋高僧傳)』 「원효전(元曉傳)」에 ‘삼학(三學)에 두루 통하고 입신(入神)의 경지’에 있다는 말에 주목하여 삼학(三學)이 계정혜(戒定慧)가 아니라 유불선(儒佛仙)이라면 그것

32) 은정희 역주(1991 초판/1992 4쇄), 같은 책, 27쪽.

33) 김부식,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24 진흥왕 37년조,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曰 風流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최치원의 난랑비서에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이 가르침을 설치한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실려 있으니, 실로 삼교(三教)를 포함한 것으로, 못 생명과 접촉하여 교화하였다. 예를 들어 들어와서는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은 노(魯)나라 사구(司寇, 공자의 벼슬)의 교지(教旨)와 같으며, 함이 없음의 일에 처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柱史, 노자의 벼슬)의 종지와 같으며,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봉행하는 것은 축건태자(竺乾太子, 석가)의 교화(教化)와 같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實乃包含三教”에 특히 주목해 보면, 현묘지도인 풍류가 삼교의 사상을 이미 자체 내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현묘지도인 풍류도는 유불도 삼교 일체 사상이며, 우리나라에는 외래종교인 유불도 삼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를 다 담고 있는 풍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래 삼교의 사상을 이해할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34) 이에 대하여 고영섭 교수는 “풍류와 참서가 그 결이 같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삼학을 유·불·선이 아닌 계·정·혜의 삼학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따라서 “오히려 풍류도의 ‘화’ 사상과 ‘불교 중도’의 ‘화’ 개념의 고리를 연결하는 시도가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최치원의 유가적 학문 배경과 중국에서 그의 과거시험 경력이나 유자(儒者) 관료체험을 고려하면, 삼학을 유·불·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참기 외서’를 읽었다는 것은 불서만을 읽은 것이 아니라 참서를 포함한 그 밖의 책들도 읽었다는 뜻이므로, 풍류와 참서가 그 결이 같지 않다는 사실로는 반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풍류도의 ‘화’ 사상과 ‘불교 중도’의 ‘화’ 개념 고리를 연결하는 시도가 더 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주제적 흐름을 벗어나므로 여기서 그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 차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위 주석 참조.; 고영섭(2009), 「고유성과 시원성-김원명의 「원효 사유 들의 고유한 유래」를 읽고」, 『한국불교학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2009년 5월 30일, 24-5쪽 참조.

이 참기 외서를 읽었다는 비문과 일치하는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박성배는 ‘대립하는 두 설명이 모두 옳다’는 “이설개득(二說皆得)”이라는 원효의 화쟁적 표현을 공자(孔子, B.C.551-B.C.479)의 이순(耳順) 사상이 엮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현지우현지(玄之又玄之)”라는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의 문장이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남동신은 「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의 “대사는 애초에 아마도 현풍(玄風, 노장사상)의 대장(大匠)이었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원효가 처음에 노장사상을 공부한 듯 하고, 이렇듯 참기(讖記)나 외서(外書)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교단으로부터 배척받은 이유였다고 생각한다.<sup>36)</sup> 그리고 원효저술의 서문에 해당하는 대의문(大意文)이 “노장(老莊)적 용어와 문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으며 이 문장들은 원효의 독창적 경전관을 드러내는 득의(得意)문이라는 사실<sup>37)</sup>은 원효의 득의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요르그 플라센은 원효가 『노자주(老子註)』 『주역주(周易註)』로 유명한 신동(神童, wonder child) 왕필(王弼, 226-249), 『장자주(莊子注)』(33권)로 유명한 곽상(郭象, 252?-312), 유가(儒家)와 사서(史書) 등 고전에 능하고 노장사상(老莊思想)을 특히 좋아했던 승조(僧肇, 374-414)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sup>38)</sup>

유동식은 최치원이 ‘풍류도’라 한 것이 ‘고대 신앙이 5세기경에 들어온 외래 종교와 만나 승화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39)</sup> 유동식이나 김상일 류의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원효 철학 가운데 일심의 무애적 성격을 해석하는 것이라든가 화쟁의 정신과 방법들을 비교하면 풍류도의 선택과 잘 통하고 있다.

원효가 ‘하나’에 바탕해 삼학을 두루 통할 수 있었던 것은 풍류도의 삼교포함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의 통불교 전통은 원효의 ‘하나’에 바탕한 회통불교적 성격 때문이고, 회통불교는 풍류도의 삼교포함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sup>40)</sup>

35) 박성배(1979/2002 재수록), 「원효 사상 전개의 문제점」, 같은 책, 319-22쪽 참조.

36) 남동신(1988), 「원효의 교판론과 그 불교사적 위치」, 『한국사론』 2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6쪽 참조.

37) 남동신(2004), 「원효의 기신론관과 일심사상」, 『한국사상사학』 제22집, 한국사상사학회, 57-8쪽 참조.

38) 요르그 플라센(2004.10), 「중현(重玄)의 법문(法門)-중국불교의 맥락에서 화쟁사상 재평가하기」, 『금강대학교 국제불교학술회의』, 금강대학교 참조.

39) 유동식(1984), 「한국의 문화와 신학사상, 풍류신학의 의미」, 『신학사상』 제41집, 한국신학연구소, 719쪽 참조.

40) 유동식은 한국의 종교사상 전체를 풍류도의 관점에서 기술하기도 하였다. 유동식(1997/2007 1판 4쇄),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90-103쪽 참조. 김상일은

### 3. 제도 : 화백(和白)

신라의 화백회의는 부족연합국가가 성립하며 생긴 것으로, 그 기원은 단군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건국 이야기인 ‘단군(檀君)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서 보이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은, 신라 시대 원효(元曉, AD.617-686)의 『기신론(起信論)』 주석에 보이는 홍익중생(弘益衆生)<sup>41)</sup>과 유사하다. 단군 이야기에서의 홍익인간 이념이 원효의 홍익중생의 이념과 동일한 불교적 자비의 전통에서 해석된 고대 한국의 고유한 지혜 전통에 대한 표현임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군조선으로부터 전해온다는 대감굿과 신라의 화백회의를 살펴보자.

신시시대 신시(神市)에서 벌인 의사결정형식을 보여주는 대감굿이 바로 화백회의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노중평은 대감굿을 만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단군조선에서 신시를 열고 화백회의(和白會議)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다. 둘째, 당시의 호혜경제 체제의 운영방식을 각 부족에게 교육하는데 활용했을 것이다. 대감굿은 단군조선 신시에서 천제(天祭)인 국중대회(國中大會) 때 분배의 원칙을 시연되었을 것이다. 대감굿은 신시가 발달했던 배달나라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화백(和白)이라고 하였다.<sup>42)</sup>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은 모두 합좌제도(合坐制度)에 의해 정치가 행해졌다.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는 수상인 대대로(大對廬)를 국왕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선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5관등인 조의두대형(阜衣頭大兄) 이상이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아 국정의 중대사를 도모하였으며, 병사를 징발하여 관작(官爵)을 주기도 했다. 백제의 경우 수상인 상좌평(上佐平)을 투표로 선거했다는 이른바 정사암(政事巖)의 고사(故事)가 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위 귀

켄 윌버(Ken Wilber)의 *Up From Eden*(London: RKP 1981)의 이론을 틀로 고고학과 발달 심리학을 병행시키며 한민족 의식 전개 역사의 8개의 의식층으로 나누고 ‘한’이라는 총체성(Integration)의 바탕으로 의식의 상승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게 “『철학』이란 삶의 경험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삶의 경험은 역사를 통해 축적된다.”(3쪽) 김상일(1988 초판/2004 2판), 『켄 윌버의 초인격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민족 의식 전개 역사의, 지식산업사 참조 ; 켄 윌버 지음, 조옥경·윤상일 옮김(2009), 『에덴을 넘어』, 한언 참조.

41) 은정희 역주(1991 초판/1992 4쇄), 같은 책, 50쪽.

42) 노중평(2006), 「대감굿이 보여주는 호혜경제시대의 분배의 원칙」 DAUM 블로그뉴스 2006.01.11. 자 <http://blog.daum.net/godam7777/6198664> 참조 ; 노중평(2006), 「귀거리만신의 굿은 역시 대인의 굿」 DAUM 블로그뉴스 2006.01.31. 자 <http://blog.daum.net/godam7777/6566751> 참조 ; 노중평(2006), 「대감굿은 신시시대 신시에서 벌인 의사결정형식」 DAUM 블로그뉴스 2006.02.02 <http://blog.daum.net/godam7777/6607860> 참조 ; 차준호(2005), 「제천행사 무천은 고조선 풍속」, 동아일보, 2005.06.11.자 참조.

족들의 합좌제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합좌제도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라의 화백(和百)이다.

신라 화백회의는 신라가 원시부족연합국가로 성립하면서 경주 부근 6촌(村) 사람들이 모여 이 6부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만든 것이다. 원시부족국가인 사로국에서 왕권 국가인 신라로 되면서, 뒤에는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이나, 벼슬아치의 모임으로 변하여, 점차 일종의 군신(君臣) 합동회의, 귀족회의, 또는 백관(百官)회의의 성격을 띤다. 화백회의에서 왕위 계승이나 국왕의 폐위, 대외적인 선전포고, 그 밖에 불교 수용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결정되었다. 화백회의는 한 명의 반대자가 있어도 의안(議案)이 통과되지 않는, 전원일치 회의체제다.<sup>43)</sup> 김영래는 화백회의를 복원해 2004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리산 실상사에서 개최된 ‘2004 생명평화대회’에서 시연했다. 그가 시연한 화백회의 의사결정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견을 끌고루 반영한다. 즉 소수의 의견도 다 반영한다(고루함). 둘째, 주장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두루한다(두루함). 셋째, 타협과 양보를 쉽게 해 어울린다(어울림). 넷째, 발언이 독점되지 않는다. 진정한 평등이 실현된다.

화백회의의 진행절차에서 보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독특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회의는 의견을 성숙시키는 과정과 결정하는 단계가 있다. 화백회의는 말발을 실어주거나 빼 내는 과정을 통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성숙되는 과정을 거친다. 화백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말발의 상호상쇄로 하나의 의견으로 나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화백회의를 하면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없다. 화백회의 원칙을 통해서도 감정 상하는 일이 없다. 화백회의는 의견을 내는 순간 ‘내 의견’이라는 소유관념이 없다. ‘나’와 ‘내 의견’을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화백회의 장소도 신령스런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참석자들은 의견을 내면서 각자 자신도 없고 자신의 의견도 없다. 이때의 상태가 일심의 상태와 유사하다.

화백회의에서 보이는 고루하고 두루하고 평등하고 하나로 어울리는 화백정신의 전통을 몸소 겪었을 원효가 불교라는 외래종교를 내면화하며 소화하고 체득·체오하면서 불교경전을 주석하고 이해하는 틀로 그의 불교철학을 완성했을 것이다. 따라서 원효 철학 유래의 한 축이 화백이라 생각한다. 화백의 만장일치는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의견들을 고루내고 그 의견들을 두루 아우르는 신성한 합의로서의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모

43) 『수서(隋書)』 「신라전」, “其有大事, 則聚群臣, 詳議而定之.” 참조. ; 『당서(唐書)』 「신라전」,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참조.

든 의견들은 다 마땅함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의견들은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의견들은 다 신성한 하나의 큰 뜻에 맞게 나온 것들로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조화와 통일을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화백의 만장일치다. 원효 철학도 이와 다르지 않다. 원효가 ‘불교의 모든 범문들이 다 이치가 있으며, 다 이치가 있으므로 모두 허락되지 않음이 없고, 허락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sup>44)</sup>고 하거나, “뭇 경전의 부분을 통합하여 온갖 흐름의 한 맛으로 돌아가게 하고, 부처 뜻의 지극히 공변됨을 열어 다양한 학파의 다른 주장들을 어울리게 한다”<sup>45)</sup>는 언설은 불교적 보편성과 전통적인 지혜의 고유성이 잘 드러난 표현이라 생각한다.<sup>46)</sup>

#### 4. 문화 : 점이(漸移)시대 문화

신라인은 여러 민족이 여러 시기를 거쳐 혼합된 점이(漸移)시대 문화의 복합 민족이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수렵채집 활동을 할 당시부터 시베리아의 스텝-타이가-툰드라 지대로부터 고원지대 ‘모피의 길’<sup>47)</sup>을 따라 한반도 백두대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동해 들어온 너구리[貂] 수렵인들이 있었고, 또 시베리아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태평양, 북극해, 대서양으로도 이어지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어진 한반도로 이 ‘강해(江海)루트’<sup>48)</sup>를 따라 오랜

44) 원효 저, 은정희 역주(2004), 『이장의』, 소명출판, pp.260-261 참조 ; 元曉, 『二障義』, HD1, p. 814a05-06, “所設諸難 皆有道理 有道理故悉無不許 無不許故無所不通” 참조.

45) 元曉, 『涅槃宗要』, HD1, “統衆典之部分歸萬流之一味 開佛意之至公和百家之異諍.”

46) 이 부분은 『원효 철학의 추측적 기원』(김원명(2008), 『원효 : 한국불교철학의 선국적 사상가』, 살림)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다. 여력이 없어 아직 더 세밀하게 발전된 공부를 하지 못했다.

47) 주채혁 교수는 삼국시대 이전 선사시대에 한반도의 백두대간은 시베리아의 스텝-타이가-툰드라 지대로부터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고원지대의 이동루트를 ‘모피의 길’이라고 한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와 생태유전학적으로 같은 계열이듯이 산악 고원지대에 사는 너구리[貂]의 이동로가 있고, 이를 따라 이동해온 수렵시대인들이 맥국(貂國)을 춘천 지역에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동국여지승람』 『춘천도호부』 조의 제1장 1절이라 할 『건치연혁(建置沿革)』 첫머리에 “본래 맥국(貂國)인데”를 근거삼고 있다. “맥국의 시원은 한반도 농경사회 자체 내에서 자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핵심 지배조직이 숲의 바다인 집승천국의 모태 시베리아-몽골의 수렵-유목 사회의 역사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또 “1970년경 북한 의 학계가 현지답사-발굴 후에 기원전 5-3세기 이전에 이미 대홍안령 북부의 홀론부이르 몽골 스텝과 눈(嫩)강 사이에 ‘맥국’=고리(槁離)국이 세워졌었다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고 한다. 주채혁(2008), 『순록유목제국론』, 백산자료원, 47-8쪽, 57-8쪽 참조.

48) 주채혁 교수는 삼국시대 이전 선사시대에 시베리아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기간에 걸쳐 이동해 들어온 수달[獾] 수렵인들이 있었다.<sup>49)</sup> 윤명철은 ‘순록’을 키우는 코리야크족이 사는 캄차카반도<sup>50)</sup>-타타르해협<sup>51)</sup>이 연해주-한반도 동남해안에 걸치는 거대한 해안선과 이어지는 한반도를 에워싼 일본열도와 중국동남해안을 동아시아의 지중해권으로 설정하고 있다.<sup>52)</sup> 고광민은 제주해녀의 자맥질 전통이 동해안-연해주-사할린-캄차카반도에까지 관류한다고 본다.<sup>53)</sup> 몽골에서 1240년 경부터 한국을 부르는 공식명칭으로 쓴 말이 솔롱고스(Solongos)인데, 솔롱고스는 ‘왼쪽’ 또는 ‘해뜨는 쪽’을 뜻하는데 바이칼호의 동쪽을 가리킨다고 한다. 실제로 솔론(Solon)족의 원주지가 바이칼 호 동쪽 언덕에서 몽골의 북쪽이며 정기스칸의 고향인 헨티·아이막에 이르는 지역이었다고 한다. 한민족의 일부가 이곳으로부터 이동해왔을 것이라 한다. 1960년대 중반 홍이섭(洪以燮, 1914-1974)은 강의 중에 솔론(Solon)을 신라(新羅)와 관련시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sup>54)</sup>

신라의 김알지(金閼智)의 ‘알지’는 금을 뜻하는 ‘알트’와 연관된 ‘맥’고을라-

태평양, 북극해, 대서양으로도 이어지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어진 한반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동해온 수달 수렵인들이 이런 ‘강해루트’를 통해 강릉에 예(濊 : 숫수달[雄水獾=Buir])국을 세워 물과 관계되는 농업생산이나 문자-문화생활과 관계를 맺으며 발달했을 것으로 본다.

- 49) 주채혁 교수는 삼국시대 이전 선사시대에 ‘모피의 길’, ‘강해(江海)루트’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 50) 서쪽의 오호츠크 해와 동쪽의 태평양 및 베링 해 사이에 있다. 남북길이는 약 1,200km, 최대너비는 약 480km에 이르며 면적은 약 37만km<sup>2</sup>이다. 스텔라니(중앙) 산맥과 보스토즈니(동부) 산맥이 반도를 따라 뻗어 있으며, 클류체프스카야 화산에 이르러 고도는 4,750m까지 높아진다. 기후는 아주 혹독해서 겨울은 길고 추우며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은 습하고 서늘하다. 캄차카의 대부분이 *이끼와 지의류* 외에 캄차카 오리나무 덤불이 식생의 전부인 툰드라 지대이다. 바람으로부터 보호된 저지대, 특히 산맥 사이에 자리잡은 캄차카 강 유역에는 *자작나무* 또는 낙엽송 숲이 우거져 있으며, 습지대에는 포플러와 버드나무가 있다. 중요한 경제활동은 어업뿐인데, 해안 일대에서의 게 잡이가 특히 중요하다. 농업은 거의 불가능하며, 약간의 소와 순록을 기른다. 주요중심지는 항구도시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츠키이다. 반도의 동해안에는 1934년에 설치된, 면적 96만 4,000ha의 크로노츠키 국립보호지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인과 원주민 코리야크(Koryak)족·추크치족·이텔멘족이다.
- 51) 사할린 섬(동쪽)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고, 동해(한국)와 오호츠크 해를 연결한다. 너비는 7~342km, 길이는 632km이다. 수심은 대체로 얕아서 210m가 채 안 된다. 북쪽에서 아무르강이 흘러들어오며, 우랄레고르스크·알렉산드르프스크사할린스키·레소고르스크·소베트스카야가반 등 러시아 연방의 항구가 있다. 캄차카 지역은 천혜의 자연 관광지이며 지구상에서 곰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세계자연 보호구역이다.
- 52) 윤명철(2002), 『장보고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원문화사, 14-21쪽 참조.
- 53) 주채혁(2008), 『순록유목제국론』, 백산자료원, 48쪽, 주 48) 참조.
- 54) 주채혁(2008), 같은 책, 39쪽, 주 34) 참조.

‘몽’고올리와 연관된 이주민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sup>55)</sup> 신라는 선사시대부터 이주해온 채집수렵인들과 기사(騎射)유목민들이 토착농경민과 동화되고 때로는 지배 세력이 되었다. 또 기원전 3세기경 진나라의 학정을 피해 이민한 사람들, 기원전 2세기에 이주한 고조선의 고조선인들, 고구려에 멸망당한 낙랑에서 내려온 사람 등으로 구성된 민족의 토대 위에 북방의 기마 민족인 흉노계까지 합류하면서 접이지대의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나라였다.

시베리아의 사면관이나 신라의 금관에 순록의 뿔이 등장하고 있는데, 툰드라의 순록유목민은 귀한 손님의 머리에 순록의 뿔을 얹어주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순록을 코리아크어로 “코리”라고 한다. 또 고려(高麗)의 정확한 음독이 “고리”라고 한다. ‘고리’의 ‘리(麗)’는 두 뿔의 ‘순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선비(鮮卑)와 조선(朝鮮)의 본고장인 홀룬부 이르 몽골 스텝과 길림성 일대에서 심지어 남경에서도 조선(朝鮮)의 조(朝)를 1성의 자오(Zhao) ‘아침’으로 읽지 않고 2성의 차오(Chao) ‘찾다’로 읽으며, 선(鮮)을 1성의 시엔(Xian)이 아니라 ‘이끼’를 뜻하는 3성 시엔(Xian, 藓)과 같이 읽는다는 점을 근거로 조선(朝鮮)은 ‘이끼[藓]나 는 곳[鮮]을 찾아다니다[朝]’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한 번 뜯어 먹으면 3-5년이 지나야 자라는 타이가 툰드라 지역의 이끼를 찾아다니는 순록유목민이 조선(朝鮮)인이라는 것이다. 서시베리아에서 동시베리아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종족이 조선족이었고, 이들은 ‘이끼의 길’을 따라 ‘해뜨는 쪽’ 아침의 나라 지역으로 이동했다.<sup>56)</sup> 이들의 후예 일부가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에서 출토되는, 알타이 무속에서 성스러운 우주수목인 ‘흰 자작나무’와 ‘순록’ 뿔 형상이 있는 신라금관을 만들었을 것이다.

신라의 유물들 가운데 유럽에서 만들어진 ‘황금보검’(보물 635호,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 출토), ‘미소짓는 상감옥’, ‘로마유리’의 형태와 디자인 기법 등이 있는 각종 유물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동쪽으로는 김해평야까지 ‘훈족 루트’와 일치해 나타나는 편두 유골, 또 편두(偏頭)를 한 ‘기마인물형 토기’는 유럽과의 교류도 활발했음을 말해주고 있다.<sup>57)</sup> 신라는 ‘유리의 길’<sup>58)</sup>인

55) 주채혁(2004년8월), 『황금 ‘엘’ 神像과 김씨네의 ‘祭天金人’』, 『강원사학』 19·20 합집 참조.

56) 주채혁(2000/2008 재수록), 『朝鮮·鮮卑의 ‘鮮’과 馴鹿遊牧民』, 『동방학지』 11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같은 논문, 『순록유목제국론』, 백산자료원, 74-85쪽 참조; 주채혁(2008), 『朝鮮·鮮卑의 鮮(Soyon)族 起源考』, 같은 책, 159-165쪽 참조.

57) 이종호(2007), 같은 책, 66-119쪽 참조.

58) 기존에 ‘실크 로드’와 ‘페이퍼 로드’가 동서를 잇는 길이었다면, ‘유리의 길’은 신라와 로마를 잇는 제3의 길이었다. 요시미즈 츠네오는 신라의 눈부신 왕관과 황금보검, 미소짓는 상감옥, 로마유리의 형태와 디자인 기법, 그 유물이 문혀 있던 고분의 피장자를 매우 타당한 근거로 추정하여, 신라와 로마문화의 유사성을 파헤치며, 이 ‘유리의 길’을 통해 두 문화권

초원길을 통해 중앙아시아, 그리스 로마 문화와 교류하면서 동북아에서 특별한 문화를 독자적으로 소화하며 발전하였다.

신라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이 결합하는 오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나라다. 신라는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다. 신라는 중원과 교류하고 동서교류의 대동맥인 스텝로드와 직접 접촉되어 유라시아와 고원지대로 연결된 몽골-시베리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문화의 다양성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sup>59)</sup> 원효의 일심(一心)에 바탕한 화쟁(和諍) 사상을 낳을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sup>60)</sup> 여러 논쟁의 차이가 하나로 통일되면서도 다양성이 인정되는 『십문화쟁론』의 화쟁 사상은 바로 이런 집단주의식적 지혜가 원효 개인의 계통발생적 지혜에 맞닿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IV. 나가는 말

21세기의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다니며 잘 모르는 걸 의미도 모르고 외우면서 나이가 들며 점차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전히 안 되기도 하면서 잘 와 닿지 않았던 저쪽 세상의 삶의 문제로부터 길어져 나온 문제의식과 그것들의 철학과 학문들을 배웠던 것처럼, 실존한 원효가 ‘고대 한국말을 쓰며’, ‘고대 한국문화 전통 속에 살며’ 유가류의 전적이 되었든 도가적 전적이 되었든 불교적 전적이 되었든 그것들을 공부하며 열린 자세로 포용하며 공부했다는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해방 이후 열심히 이교인 서양종교들과 서양철학들을 포용적인 자세로 공부하였듯이, 그리고 이제는 미국적 학문방법과 그들의 소

---

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인 문헌과 유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요시미즈 츠네오, 오근영 역(2002), 『로마문화 왕국, 신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 참조.

59) 이종호(2007), 『한국 7대 불가사의』, 역사의아침, 118-9쪽 참조.

60) III장 전체 김원명(2008), 『부처의 무기와 원효의 존재이해』, 『철학과 문화』 제17집, 한국의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참조. 신라문화가 접이지대 문화로서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통해 오랜 동안 다양한 문화를 용광로처럼 녹여 이해하는 전통이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할 만한 직접적 증거를 찾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 논자는 불교적 용어로서 ‘일심’을 교리적으로 알든 모르든 일상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것을 같은 말이며 다른 말인 ‘한 마음’으로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고대에도 사용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계통발생적 기원에 대해 논자 나름대로 그럴듯한 해석적 상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연구는 현재 논자의 능력과 관심을 벗어난다. 차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훌륭한 연구자들의 연구가 성숙하고 익기를 바란다.

리에 포용적인 자세로 귀를 기울이듯이, 원효는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상황과 학문적으로 성숙된 많은 유가 도가류의 서적들을 공부하고 불교사상과 씨름하며 내면화하면서 지금으로서도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글로 토해냈다.

한국의 고대에는 고대 한국말, 무속과 풍류도와 ‘화백’의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중원 중심의 동북아시아 이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오랜 동안 다른 세계와도 교류하며 축적된 문화적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효의 불교 이해의 시원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언어를 쓰며 생각하고 그 시대를 살며, 각자 자신 삶의 고민을 그때마다 근본 경험에서 발원하며 거기에서 나타나오는 깨어있음을 통해 해결한다.

엘리아데(Eliade, Mircea, 1907-1986)는 현재와 미래의 종교는 과거의 종교를 반복하면서 나타난다고 한다. 원효의 글은 원효 자신의 근본 경험에서 발원한 내재적 이해 가능 구조와 당시 신라 사회의 다양성 속의 조화(Unity in diversity)를 지향하는 시대전통 속에서 만들어졌다. 원효철학은 한 개인으로서,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동시에 공통인류로서 겪는 근본경험으로부터 나왔지만, 원효가 속한 자연 및 종교 그리고 문화와 역사의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원효 철학은 불교 수입 이전 신라의 전통종교 정신을 불교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켄 윌버(Ken Wilber)는 인간은 개인으로서 “내면적인 그리고 외면적인 발달은 모두 단지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관련해서 일어난다”<sup>61)</sup>고 하였다. 김상일은 “인간의 개인의식이나 집단 인류의 문명사나 모두 총체성(Integration)을 찾아 애타게 갈구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총체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만족(Satisfaction)을 얻지 못한다”고 보고, 한국말에 전해오는 ‘한’이 이런 인간의식과 역사의 시원이자 목표라 본다. 이런 ‘한’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와 환경의 제한으로 평균적 개인들이 ‘평균적 양상(average mode)’을 띠지만, ‘평균적 양상’의 개인들 가운데 이런 평균을 넘어 ‘한’에 뛰어 들어가 그것을 만난 ‘전향적 양상(advanced mode)’의 소수자들이 생긴다고 한다.<sup>62)</sup> 원효는 고대 한국 중 하나인 신라에 꽃핀 ‘전향적 양상’의 소수 중 한 분이며 ‘창조적 소수’ 중 한 분이었다.

본 연구는 그의 실존적 근본경험이 그가 살던 시대의 살아있는 말 가운데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한국의 ‘문화목록어’라 할 수 있는 ‘한’, 그가 살던 시대의

61) 켄 윌버 지음, 조효남 옮김(2004 초판 1쇄/2005 초판 2쇄), 『모든 것의 역사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대원출판, 14-15쪽, 19쪽 참조

62) 김상일(1988 초판/2004 2판), 같은 책, 4쪽, 17쪽 참조

살아있는 전통 종교인 풍류(風流)와 무애(無碍), 단군신화와 대감굿 그리고 화백(和伯)의 지혜전통과 다양한 문화가 오랜 동안 다양한 경로로 들어와 축적된 접이지대의 문화교류 증거들을 통해, 그의 개체발생적 지혜가 고대 한국 중 하나인 신라인의 계통발생적 지혜와 다르지 않은 것들이어서 그의 불교철학 이해의 바탕이었다고 해석 상상함으로써, 원효 철학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지평의 확장을 꾀하였다.<sup>63)</sup>

---

63) 이 글은 2009년 봄 전국불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효 사유 틀의 고유한 유래」(한국불교학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2009년 5월 30일)를 보완하여 논문으로 쓴 것이다.

## 참고문헌

- 원효 저, 은정희 역주(2004), 『이장의』, 소명출판.
- 원효 저, 은정희·송진현 역주(2000),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 원효 저, 은정희 역주(1991 초판/1992 4쇄),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일지사.
- 고영섭(2009), 『고유성과 시원성-김원명의 『원효 사유 틀의 고유한 유래』를 읽고-』, 2009년 봄 전국불교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김도공(2005.8), 『원효의 화쟁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장자 제물론의 영향』, 『보조사상』 제24집, 보조사상연구원.
- 김상일(2004), 『원효의 판비량론 비교 연구』, 지식산업사.
- 김상일(1988 초판/2004 2판), 『켄 율버의 초인격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민족 의식 전개역의 역사』, 지식산업사.
- 김원명(2009), 『원효 사유 틀의 고유한 유래』, 2009년 봄 전국불교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 김원명(2008), 『부처의 무기(無記)와 원효의 존재이해』, 『철학과 문화』 제1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연구소.
- 김원명(2008), 『원효 : 한국불교철학의 선국적 사상가』, 살림.
- 남동신(2004), 『원효의 기신론관과 일심사상』, 『한국사상사학』 제22집, 한국사상사학회.
- 남동신(1988), 『원효의 교판론과 그 불교사적 위치』, 『한국사론』 2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노중평(2006), 『귀거리만신의 굿은 역시 대인의 굿』, DAUM 블로거뉴스 2006.01.31. 자 <http://blog.daum.net/godam7777/6566751>
- 노중평(2006), 『대감굿은 신시시대 신사에서 벌인 의사결정형식』, DAUM 블로거뉴스 2006.02.02 <http://blog.daum.net/godam7777/6607860>
- 노중평(2006), 『대감굿이 보여주는 호혜경제시대의 분배의 원칙』, DAUM 블로거뉴스 2006.01.11. 자 <http://blog.daum.net/godam7777/6198664>
- 유동식(1984), 『한국의 문화와 신학사상, 풍류신학의 의미』, 『신학사상』 제41집, 한국신학연구소.
- 윤명철(2002), 『장보고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 이기상(1993), 『하이데거의 현상실성의 해석학』, 이기상 편저, 『하이데거 철학에의 안내』, 서광사.
- 이중호(2007), 『한국 7대 불가사의』, 역사의아침.
- 예문동양사상연구원·고영섭 편저, 『원효』(2002), 예문서원.
- 주채혁(2008), 『순록유목제국론』, 백산자료원.
- 주채혁(2004년8월), 『황금·엘 神像과 김씨네의 ‘祭天金人’』, 『강원사학』 19·20 합집
- 차준호(2005), 『체천행사 무천은 고조선 풍속』, 동아일보, 2005.06.11.자

- 최남선(1930/1973 재수록), 『조선불교 :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 『육당 최남선 전집』 2, 현암사.
- 최봉영(2009), 『퇴계학의 바탕으로서 한국말』,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글 못』 제17집,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2009년8월24일.
- 최봉영(2009), 『퇴계학의 바탕으로서 우리말』, 『한글날 기념학술대회 : 우리말로 학문하기 위한 조건들』,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2009년10월9일.
- 최유진(2005.8), 『원효와 노장사상』, 『보조사상』 제24집, 보조사상연구원 .
- 최유진(2004), 『원효와 노자』, 『원효학연구』 제9집, 원효학연구원.
- 石井公成(1983), 『元曉と中國思想』, 『인도학불교학연구』 31-2, 일본인도불교학회.
- 요시미즈 츠네오, 오근영 역(2002), 『로마문화 왕국, 신라』, 씨앗을 뿌리는 사람.
- 요르그 플라센(2004.10), 『중현(重玄)의 법문(法門)-중국불교의 맥락에서 화쟁사상 재평가하기-』, 『금강대학교 국제불교학술회의』, 금강대학교.
- 켄 월버 지음, 조옥경·윤상일 옮김(2009), 『에덴을 넘어』, 한언.
- 켄 월버 지음, 조효남 옮김(2004 초판 1쇄/2005 초판 2쇄), 『모든 것의 역사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대원출판.

[Abstract]

## Non-Buddhist Origin of Wonhyo Philosophy

Kim, Won-Myou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give a bright to Wonhyo philosophy in the respect of non-Buddhism.

To justify the direction of this research, the modern research results to uncover the characteristics of Wonhyo philosophy were cleanup simply. Recent studies tend to reveal a correlation between the non-Buddhist factors and the Buddhist ones in Wonhyo philosophy. His existential fundamental experience was correlated with the ancient Korean collective wisdom which could be revealed the ancient Korean 'Han', poetical religion of ancient Korea, 'Daegamgut' and 'Hwa Baek', the Cultural exchanges and the evidences of the Shilla and the world at that time.

According to Antoine Étienne Renaud Augustin Serres(1786-1868), 'ontogeny recapitulates phylogeny.' Ernst Haeckel(1834-1919) proposed that the embryonal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organism (its ontogeny) followed the same path as the evolutionary history of its species (its phylogeny). According to C. G. Jung(1875-1961)'s theory, Wonhyo's 'individual fundamental experience' in Wonhyo's individual brain system is the self-development of collective unconscious of humanity which has been accumulating historical and spiritual heritage of humanity. Therefore Wonhyo own's experience is Koreans' experience, at the same time, is the experience of mankind.

**Key Words** : Nativeness, Basement, 'Han', 'Hwa Baek'

투 고 일 : 2009년 9월 13일

심 사 일 : 2009년 9월 18일

계재결정일 : 2009년 10월 10일